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1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18일 (윤달 5월 25일) 화요일

“전남 농어촌서 여름휴가를” 대대적 캠페인

전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남 농어촌에서 올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여가와 힐링에 대한 도시민 관심이 늘면서 가족단위 농촌 체험 확대와 농촌 방문객이 늘면서 지난해 전남을 찾은 방문객은 연간 86만 명에 달했다. 올 여름 손님맞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농촌체험마을 등 전남지역 368개소의 관광 시설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종사자 교육, 시설물 안전 및 위생점검,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보험과 시설물 화재보험 가입 유

지남해 전남 찾은 방문객 연간 86만명 달해

‘농촌여행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도 제공

도,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요원 교육 등을 실시했다

마을에서는 마을길 청소,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촌활린운동과 자체 안전점검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매년 도시민에게 인기가 높은 마을은 여수 사곡마을, 순천 용오름마을, 나주 문평

명하죽빛마을, 담양 무월마을, 구례 오미마을, 고흥 신기거북마을, 강진 녹향월촌마을, 무안 약초골한옥마을, 완도 청산도노리보마을, 신안 영산도명품마을 등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매년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이곳 체험마을들의 인기 프로그램은 물

놀이와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슬기 잡기, 맨손고기잡이, 바지락 캐기, 통발 체험, 짬뽕어 잡기 등이다. 두부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떡메치기 체험, 버섯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올해는 강진 푸소(FU-SO) 체험이 전국 농촌관광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2~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푸소(FU-SO)체험은 ‘필링-업(Feeling-Up)’,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혼란한 농촌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하도록 구성됐다.

또 영암 왕인박사, 영광 대장초록 등 15개 마을에서 청소년의 농촌 현장체험과 인성 함양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인증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예약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농촌여행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체험마을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남 농촌 마을에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에서 ‘농촌체험여행’, ‘농촌체험마을’ 등을 검색하면 예약 플랫폼에 등록된 체험마을 판매상품과 함께 예약결제가 가능하고, 농촌체험마을에서 체험, 숙박, 식사, 특산물 구매 시 신한·삼성·NH농협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도 가능하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올 여름 휴가는 전남 농촌에서 멋진 추억을 쌓고 도농 간 나눔의 미덕도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지역 축제, 관광농원, 체험 및 숙박시설, 식당 등 시설을 활용해 마을을 찾는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올리는 윈윈 프로그램이다.

김정환 기자



Photo漫評

대화 거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5당 대표 화동 제안을 사실상 가절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새가 아무리 재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 저들이 아무리 본부종대 1, 2, 3종대를 타리고 국민 상대로 아무리 정처소를 벌려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고 영수 화담불참 의사를 재확인했다. 거절 이유에 대해 홍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불참의 명분으로 들고 있다. 그는 전날(1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권 출범 후 첫 대면에서 서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FTA를 통과시킨 저로서는 난감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와대 회동은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다는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홍준표



문재인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북측에 제안

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를 북측에 제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성모 방문을 개최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안

한 17일 오후 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서 관계자들이 문의 전화를 받으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폭염특보 확대...다음주까지 불볕더위

“오후 최고기온 33도 이상 매우 더울 것...외출 자제 당부”

광주와 전남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광주와 전남 화순·진도·담양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12시50분 현재 최고기온은 구

례·나주 32.2도, 광주·보성 별교 32.1도, 광양 31.8도, 여수 31.7도, 순천 31.6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오후 3시에 발효된 전남 나주·순천·광양·여수·보성·구례·곡성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유지되고 있다.

기상청은 연중 이틀 이상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효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이날 오후 3시 이후부터 18일 새벽 사이에는 대기불안정에 의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50mm이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무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19일에는 폭염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오후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매우 더울 것으로 보이고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겠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인호 기자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가짜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